

공시된 결합재무제표의 분석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박 상 봉*

〈목 차〉

I. 연구목적	IV. 결합재무제표 공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I. 기업소유구조의 형태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현황	1. 문제점
1. 우리 나라 기업소유구조의 형태	2. 결합재무제표제도의 향후 개선방향
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현황	V. 결론
III. 결합재무제표의 비율분석	참고문헌
1. 분석대상과 방법	Abstract
2. 재무상황분석	

I. 연구목적

우리 나라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과도한 자금대차, 상호지급보증으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해 왔다. 1990년도 중반에 접어들어 기업부도가 잦아지면서 일부 계열사의 부도가 기업집단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계열기업과 기업집단의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기업집단전체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기업간 소유지분을 중심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는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결합재무

* 동의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제표를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왔다. 재계의 입장은 외국에서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한 사례가 없으며, 공시비용, 정보노출 등을 고려 도입을 찬성하지 않았고,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회계정보투명성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도입을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16개 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됨으로써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특성과 결합재무제표자료로 전체의 재무제표를 비금융부문과 금융부문으로 구분하고 규모, 재무비율, 내부거래 등을 분석하고 공시된 결합재무제표의 문제점과 향후개선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기업소유구조의 형태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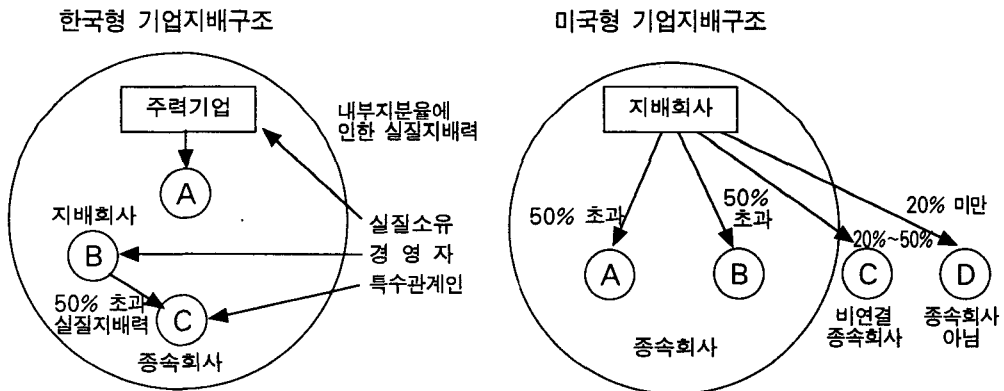
1. 우리 나라 기업소유구조의 형태

우리 나라의 특수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결합재무제표도입이 미국과 비교해 보면 1933년부터 증권법(Security Act)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 온 미국의 경우에는 <표 II-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결지배회사인 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여러 종속회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통한 종속회사의 지배형태”가 일반적인 기업소유구조이다. 따라서 지분율 기준만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도 단일 의사결정체인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집단은 그 성장환경이나 경영방식이 선진 외국과 크게 다르다. 특히 지배구조면에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인¹⁾ 첫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가 개인대주주 및 그의 가족(이하 개인대주주라 함)에게 집중되어 있다. 둘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지 못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 셋째, 대부분의 의사결정권한이 소유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상의하달식이다. 넷째,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율과 개인대주주의 지분율이 통합되어(소위 內部持分率에 의거) 피투자회사를 지배한다. 다섯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상호간에 직접적인 출자에 의한 지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대주주가 각각 지배하

1) 최창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1998. 1. 20, pp.3~4.

고 있어서 그 회사 의사결정기관(예: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任免)할 수 있는 권한이 개인대주주에게 있거나 개인대주주가 임원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들은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활동한다. 여섯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출자에 의한 지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차입금에 대하여 상호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공동연맹체가 된다는 특징으로 <표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미국식 지분율기준에 근거한 연결대상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현행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우리 나라 기업집단에 관한 재무정보를 적정히 공시할 수 없다.

<표 II-1>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와 미국형 기업지배구조 비교



나아가 우리 나라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소유 경영자 본인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와의 공유관계를 통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²⁾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가 기본적으로 회사 대 회사 간의 주식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진다. 이에 따라 미국형 기업지배구조에서 투자관계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해 50% 초과 주식의 소유함으로써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로써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연결대상회사)을 묶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20%~50%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향력 있

2) 김진수, 대기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p.38.

는 투자회사는 투자계정을 설정하여 지분법(equity method)을 통해 영향받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반영한다. 따라서 20% 미만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투자회사는 투자계정을 설정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여 배당금 관련 거래 등 극히 제한된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를 한다. 이러한 미국형 구조와 달리 한국형 구조에서는 모든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절대적 지배회사도 종속회사도 기업집단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기업집단 내의 일부 부분집합은 미국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집단 전체는 우리 나라 특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³⁾ 또한 주식소유관계가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주식소유구조가 실질소유경영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질소유경영자 자신도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질소유경영자의 인척, 회사 임원 등에 주식이 분산 또는 위장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지분보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련 기준에 따른 내부 지분율은 알 수 있다.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들은 서로 간에 지급보증, 자금대차, 내부영업거래, 인사교류 등으로 재무적·영업적인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은 경제적 단일체로 경영해 왔다.

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현황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국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⁴⁾ 다만,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70억 원 미만인 소규모계열회사나 천재지변, 청산 등으로 공신력있는 재무제표작성이 불가능한 계열회사 등은 제외된다. 외감법 및 동시행령은 매년 5월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결합대상 기업집단,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명단을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인 16개 기업집단이 1999년도의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 II -2>와 같다.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한 16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분석대상업체의 수는 국내 323개사와 해외 397개사를 포함한 총 726개에 달한다.

3) 김진수, 전개논문, p.39.

4)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4

〈표 II-2〉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및 작성회사 현황

(단위 : 개)

순위	집단명	작성회사명칭	총계업사			결합대상계업사			결합제외계업사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1	현대	현대중공업	35	112	147	34	74	108	1	38	39
2	삼성	삼성전자	45	192	237	40	116	156	5	76	81
3	엘지	엘지화학	42	93	135	40	87	127	2	6	8
4	에스케이	SK(주)	39	44	83	33	27	60	6	17	23
5	한진	대한항공	18	24	42	14	10	24	4	14	18
6	롯데	호텔롯데	28	8	36	24	3	27	4	5	9
7	(주)대우	*	2	47	49	2	47	49	0	0	0
8	금호	*	20	19	39	18	16	34	2	3	5
9	한화	(주)한화	23	17	40	19	10	29	4	7	11
10	쌍용	쌍용양회	22	36	58	20	12	32	2	24	26
11	한솔	한솔제지	19	13	32	19	9	28	0	4	4
12	두산	(주)두산	16	8	24	14	5	19	2	3	5
13	현대정유	*	3	1	4	3	1	4	0	0	0
14	동아	동아건설산업	16	24	40	8	8	16	8	16	24
15	동국제강	동국제강	14	5	19	13	4	17	1	1	2
16	효성	*	13	15	28	10	10	20	3	5	8
17	대림	*	18	5	23	13	3	16	5	2	7
18	에스-오일	*	2	1	3	1	1	2	1	0	1
19	동부	동부건설	19	4	23	15	2	17	4	2	6
20	코오롱	(주)코오롱	18	13	31	15	9	24	3	4	7
21	동양	동양시멘트	25	17	42	21	12	33	4	5	9
22	고합	*	6	13	19	2	7	9	4	6	10
23	제일제당	*	18	18	36	17	11	28	1	7	8
24	대우전자	*	3	60	63	3	46	49	0	14	14
25	현대산업개발	*	7	0	7	5	0	5	2	0	2
26	아남	*	14	9	23	8	4	12	6	5	11
27	새한	(주)새한	12	11	23	12	9	21	0	2	2
28	진로	진로유통산업	16	4	20	12	3	15	4	1	5
29	신세계	*	10	1	11	8	1	9	2	0	2
30	영풍	(주)영풍	21	7	28	12	2	14	9	5	14

31	한라	*	14	10	24	6	7	13	8	3	11
32	해태	*	4	1	5	1	0	1	3	1	4
33	강원산업	*	2	0	2	2	0	2	0	0	0
34	대상	*	15	17	32	14	9	23	1	8	9
35	신호	*	16	4	20	8	3	11	8	1	9
36	삼양사	(주)삼양사	10	2	12	8	1	9	2	1	3
합 계			438	634	1,072	373	403	776	65	231	296
			(605)	(855)	(1,460)	(494)	(569)	(1,063)	(111)	(286)	(397)

* ()안은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기업집단을 포함한 수치임.

* 199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 17개(726개 결합대상계열회사)

* 2000사업연도 신규지정 대규모기업집단(7개) 중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 영풍

자료 : 증권감독원 회계감독국, 2000. 5. 8.(제2000-19호)

Ⅲ. 결합재무제표의 재무비율분석

1. 분석대상과 방법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199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를 제출시한인 2000년 7월 말까지 모두 제출한 16개 기업집단 소속 분석대상 업체 수는 720개(국내 323, 해외 397)이며, 30대 기업집단 중 연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는 10개 기업집단, 워크아웃·법정관리대상 3개기업집단, 6월결산 기업집단 등 총 14개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분석방법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석사항을 기초로 분석하고 현금흐름표는 2000년부터 작성하여 2001년에 제출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분석대상재무제표를 전체, 비금융부문, 금융부문별로 구분하여 다음사항을 분석한다. 첫째, 규모에서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분석하고, 둘째는 재무비율분석에서 수익성(매출액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등),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비율 등), 셋째는 내부거래비중, 지역별 사업현황 등을 분석한다.

2. 재무상황분석

2.1 기업집단규모

2.1.1 자산규모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상 비금융부문의 총자산규모는 311조원, 금융업을 포함한 총자산규모는 41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4대 기업집단의 총자산규모는 312.7조원으로 16개 기업집단 총자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삼성그룹(124조원)이고, 비금융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현대그룹(86조원)이다. 16개 기업집단의 총자산에서 금융업의 자산은 28.2%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그룹(52.0%)과 동양그룹(72.4%)의 경우 금융업의 비중이 타그룹에 비해 현저히 높다. 상호출자와 내부거래를 상계하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단순합산재무제표와 비교해 자산규모가 현대그룹은 16.7조원(14.3%), 삼성그룹은 26.9조원(17.9%), LG그룹은 11.3조원(17.1%), SK그룹은 12.9조원(27.5%) 감소하였다. 총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 LG 순서이며, 금융부문을 제외한 경우는 현대, 삼성순위이다. 4대기업집단의 평균 총자산규모는 78조원이며, 그외 나머지 기업집단의 평균의 8.9조원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금융부문과 금융부문 간의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 16개 기업집단 전체의 평균은 67.5%와 32.5%이지만 삼성은 52%, 동양은 72.7%로서 이들 기업집단은 타 기업집단에 비해 금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자산규모의 감소는 결합이라는 하나의 가정에 기초한 것이지 개별기업의 실제 자산이 감소했다거나, 기업집단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규모를 과대계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표 III-1〉 참조).

2.1.2 부채규모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상 비금융부문의 부채는 215.3조원, 금융업 포함 총부채 규모는 32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4대 기업집단의 총부채규모는 243.1조원으로 16개 기업집단 총부채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삼성그룹(101조원)이고, 비금융부문의 부채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현대그룹(60.2조원)이나, 이는 총자산규모와 비례하고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업의 비중이

큰데 기인한다. 16개 기업집단의 총부채에서 비금융업의 부채비중은 65.7%이며, 금융업의 비중이 큰 기업집단은 삼성그룹(60.2%)과 동양그룹(77.1%)이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단순합산재무제표와 비교해 부채규모가 현대그룹은 4.3조원(5.5%), 삼성그룹은 12.7조원(11.2%), LG그룹은 2.8조원(6.2%), SK그룹은 4.8조원(16.4%) 감소하였다. 부채의 부문별로는 비금융부문에서는 현대가 가장 크고, 금융부문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부문의 평균규모는 4대 기업집단이 38.9조이며 나머지 기업집단은 약 5조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Ⅲ-1〉 결합재무제표의 자산현황

(단위 : 조)

그룹	전체	비금융		금융	
		금액	%	금액	%
현대	100.0	86.4	84.8	15.5	15.2
삼성	124.0	62.8	48.0	68.1	52.0
LG	55.0	41.9	74.5	14.3	25.5
SK	34.0	33.3	95.1	1.7	4.9
한진	25.6	21.8	84.0	4.1	16.0
쌍용	9.8	8.5	85.3	1.5	14.7
한화	10.4	8.8	84.4	1.6	15.6
롯데	14.4	14.0	97.0	0.4	3.0
한솔	9.3	8.5	85.1	1.5	14.9
두산	6.6	6.5	99.5	0.1	0.5
동부	8.1	4.4	52.8	3.9	47.2
한라	1.2	1.2	100.0	*	0.0
코오롱	4.3	4.2	97.2	0.1	2.8
동양	11.6	3.4	27.3	8.9	72.7
새한	3.2	3.2	100.0	*	0.0

* 비금융부문과 금융부문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라, 새한의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음.

〈표 Ⅲ-2〉 결합재무제표의 부채현황

(단위 : 조)

그룹	전체	비금융		금융	
		금액	%	금액	%
현대	74.8	60.2	79.7	15.3	20.3
삼성	101.0	41.5	39.8	62.7	60.2
LG	43.0	30.6	70.7	12.7	29.3
SK	24.4	23.1	93.5	1.6	6.5
한진	18.8	15.4	80.6	3.7	19.4
쌍용	9.3	8.0	86.0	1.3	14.0
한화	7.4	6.1	82.6	1.3	17.4
롯데	6.7	6.3	94.0	0.4	6.0
한솔	6.8	5.9	81.4	1.3	18.6
두산	4.7	4.6	99.3	0.1	0.7
동부	6.6	3.1	46.9	3.5	53.1
한라	0.9	0.9	100.0	*	0.0
코오롱	2.9	2.8	96.9	0.1	3.1
동양	10.7	2.5	22.7	8.4	77.3
새한	2.4	2.4	100.0	*	0.0

* 비금융부문과 금융부문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라, 새한의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 금융부문은 평균을 구하는 제외함.

2.1.3 자본규모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상 비금융부문의 자본규모는 95.5조원, 금융업을 포함한 총자본 규모는 9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4대 기업집단의 총자본규모는 69.6조원으로 16개 기업집단 총자본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현대그룹(25.2조원)이고, 금융부문의 자본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삼성그룹(5.5조원)이다. 내부지분거래라 할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와 단순합산재무제표를 비교한 자본규모가 현대그룹은 12.4조원(32.9%), 삼성그룹은 14.2조원(38.4%), LG그룹은 8.5조원(41.4%), SK그룹은 8.1조원(45.8%) 감소하였다. 〈표 Ⅲ-3〉에서 자본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현대, 삼성, LG, SK의 순서이며, 이들 4대 기업집단 중 삼성은 금융부문의 자본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부문에서는 현

대가 가장 큰 규모이며, 4대 기업집단의 평균 자본규모는 17조원, 나머지 기업집단의 평균 자본규모는 2조원으로 이들 기업집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 결합재무제표의 자기자본현황

(단위 : 조)

그 룹	전 체	비금융		금 용	
		금액	%	금액	%
현 대	25.2	26.2	99.2	0.2	0.8
삼 성	22.8	21.4	79.6	5.5	20.4
L G	12.0	11.2	87.3	1.6	12.7
S K	9.6	10.2	99.0	0.1	0.1
한 진	6.8	6.4	93.6	0.4	6.4
쌍 용	0.5	0.4	74.6	0.2	25.4
한 화	3.0	2.7	88.8	0.3	11.2
롯데	7.7	7.7	99.5	0.1	0.5
한 솔	2.5	2.6	94.6	0.1	5.4
두 산	1.9	1.9	99.9	0.1	0.1
동 부	1.5	1.2	77.2	0.4	22.8
한 라	0.3	0.3	100.0	*	*
코오롱	1.4	1.4	97.9	0.1	2.3
동 양	0.9	0.9	62.9	0.5	37.1
새 한	0.8	0.8	100.0	*	*

* 비금융부문과 금융부문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라, 새한의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 금융부문은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 제외

2.1.4 매출액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상 비금융부문의 매출액은 266.0조원, 금융업을 포함한 매출액은 312.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41.2조원으로 16개 기업집단 매출액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집단은 삼성그룹(86.4조원)임. 그러나 비금융업기준으로는 현대 65.4조원, 삼성 59.0조원, LG 51.7조원, SK 32.0조원으로 현대그룹의 매출액규모가 가장 크다. 16개 기업집단의 매출액에서 금융업의 매출액(영업수익) 비중이 15.3%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그룹(32.4%)과 동양그룹(56.1%)의 경우 금융업의 비중이 타그룹에 비해 현저히 높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단순합산재무제표와 비교해 매출규모가 4대기업집단의 경우 현대그룹은 43조원(38.1%), 삼성그룹은 61.7조원(41.6%), LG그룹은 31.8조원(38.0%), SK그룹은 18.4조원(35.8%) 감소하는 등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수직계열화(또는 연관산업영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대기업집단의 평균매출액 규모는 51.5조원이며 나머지 집단의 경우 평균매출액 규모는 5조원으로서 이들 기업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4〉 결합재무제표의 매출액현황

(단위 : 조)

그룹	전체	비금융		금융	
		금액	%	금액	%
현대	69.9	65.4	93.5	4.6	6.5
삼성	86.4	59.0	67.6	28.2	32.4
LG	51.7	48.6	93.7	3.3	6.3
SK	33.0	32.0	96.8	1.0	3.2
한진	15.8	13.4	84.1	2.5	15.9
쌍용	11.4	10.4	91.4	1.0	8.6
한화	6.2	5.7	91.5	0.5	8.5
롯데	9.0	9.0	99.6	0.0	0.4
한솔	3.9	3.8	95.8	0.2	4.2
두산	3.5	3.5	99.9	0.0	0.1
동부	6.0	2.9	48.0	3.2	52.0
한라	2.3	2.3	100.0	*	0.0
코오롱	4.4	4.4	99.2	0.1	0.8
동양	5.6	2.5	43.9	3.2	56.1
새한	1.8	1.8	100.0	*	0.0

* 매출액총액은 전체계열사를 대상으로 작성, 비금융부문과 금융부문은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았기 때문임.

* 한라, 새한의 경우 금융업과 보험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 금융부문은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 제외

2.1.5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2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4대 기

업집단의 영업이익은 17.6조원으로 16개 기업집단 영업이익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큰 기업집단은 삼성그룹(8.9조원)이고 가장 작은 기업집단은 코오롱그룹(-0.1조원)이다. 16개 기업집단의 영업이익에서 금융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5% 정도로 기업집단의 금융업부문 수익공헌도는 아주 미미하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단순합산재무제표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현대그룹은 2,590억원(6.9%), 삼성그룹은 1조1,357억원(11.3%), LG그룹은 633억원(2.0%), SK그룹은 452억원(2.2%) 감소하였다.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7.5조원이며, 이 중 삼성그룹(2.9조원)과 LG그룹(2.7조원)이 16개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5〉 결합재무제표의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단위 : 조)

그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체	비금융	금융	전체	비금융	금융	
현대	69.9	65.4	4.6	3.5	3.6	0.0	0.05
삼성	86.4	59.0	28.2	8.9	8.1	0.3	2.9
LG	51.7	48.6	3.3	3.0	2.8	0.2	2.7
SK	33.0	32.0	1.0	2.1	2.0	0.0	0.3
한진	15.8	13.4	2.5	0.6	0.6	0.0	0.2
쌍용	11.4	10.4	1.0	0.2	0.2	0.0	0.02
한화	6.2	5.7	0.5	0.5	0.4	0.1	0.2
롯데	9.0	9.0	0.0	0.5	0.5	0.0	0.3
한솔	3.9	3.8	0.2	0.2	0.2	0.0	-0.2
두산	3.5	3.5	0	0.4	0.4	0	0.3
동부	6.0	2.9	3.2	0.4	0.2	0.2	0.1
한라	2.3	2.3	0	0	0	0	0.5
코오롱	4.4	4.4	0	-0.4	-0.1	0	0.3
동양	5.6	2.5	3.2	0.3	0.2	0.2	0.1
새한	1.8	1.8	0	0.1	0.1	0	-0.1

* 비금융부문과 금융부문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재무분석

2.2.1 수익성분석

매출액에 대비한 이익률은 매출수익 단위당 이익액을 백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달성된 매출액 단위당 마진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대체로 16개 기업집단 비금융업의 수익성이 금융업의 수익성보다 양호하다. 영업이익은 16개 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전체 영업이익률은 평균 6.60%이고 비금융업의 경우 7.20%, 금융업의 경우 2.13%를 나타내고 있다. 4대 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률은 7.28%, 비금융업 영업이익률은 8.09%이나 금융업에서는 부진하여 1.33%의 영업이익률에 그치고 있다. 경상이익은 16개 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전체 경상이익률은 평균 3.63%이고 비금융업의 경우 3.17%, 금융업의 경우 3.22%를 나타내고 있고, 4대 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경상이익률은 평균 4.60%이고 비금융업은 4.20%, 금융업의 경우 2.61%로 분석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16개 기업집단의 매출액대비 전체 당기순이익률은 평균 2.40%이고 비금융업의 경우 2.99%, 금융업의 경우 1.10%에 그치고, 4대 기업집단의 경우도 전체 당기순이익률이 평균 2.48%에 머무르고, 비금융업의 경우 3.32%, 금융업의 경우 0.21%로 나타난다.

2.2.2 안정성분석

① 유동성비율

기업의 단기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동자산, 즉 단기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상대적인 크기로 측정되는 유동비율을 살펴보면, 16개 기업집단의 전체 유동비율은 평균 95.12%이고 비금융업의 경우 81.38%로 나타나고 있다. 4대 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유동비율은 평균 97.92%이고 비금융업은 83%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기업집단의 평균은 이보다 약간 낮은 86.0%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기업집단별로는 동부, 삼성, 코오롱, 동양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강원산업과 한화의 경우 유동성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과 이로서 상환할 유동부채의 상대적인 규모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당좌비율의 경우 16개 기업집단 중 4대 기업집단 평균은 82.8%, 나머지 기업집단의 평균은 67.1%로 이들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좌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동부를 들 수 있으며, 새한, 한화의 경우

당좌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III-6> 참조).

<표 III-6> 결합재무제표의 유동비율 현황

(단위 : %)

그룹	당좌비율	유동비율		
		전체	비금융	금융
현대	54.0	70.6	80.8	38.4
삼성	131.4	148.2	95.8	56.1
LG	69.3	82.9	75.2	96.8
SK	72.9	83.0	75.9	256.6
한진	82.8	92.7	85.2	108.4
쌍용	63.0	70.9	59.4	79.7
한화	31.8	46.8	49.9	37.8
롯데	67.6	88.5	88.5	89.5
한솔	68.0	77.9	73.8	97.7
두산	69.9	92.1	91.5	2,985.9
동부	129.9	160.3	77.6	482.9
한라	66.9	99.6	99.6	*
코오롱	86.5	112.1	112.3	107.9
동양	58.1	101.9	79.7	107.1
새한	45.4	70.0	70.0	*

* 한라, 새한의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음.

② 부채비율

16개 기업집단의 비금융업 평균부채비율은 225%, 금융업 포함 평균부채비율은 332%로 나타나고 있다. 4대 기업집단의 비금융업 평균부채비율은 1998년 말 328.8%에 비해 225%이며, 금융업 포함 평균부채비율은 349%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업의 비중이 높고 금융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활발할수록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업을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즉,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활발하여 예금 또는 보험계약이 증가한 경우 부채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LG그룹의 경우 계열회사간 출자가 비금융업회사인 LG전자와 LG화학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비금융업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금융업을 제외하는 효과가 삼성그룹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 16개 기업집단 중 비금융부문의 부채비율이 300%를 상회하는 기업집단은 쌍용과 강원산업으로 나타난다. 건설업의 부채비율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이 일반적이는데 쌍용그룹의 경우 쌍용건설과 남광토건 등 건설회사의 비중이 높고, 특히 쌍용건설과 남광토건은 기업개선작업(workout) 중에 있어 이러한 상황이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⁵⁾

〈표 Ⅲ-7〉 결합재무제표의 부채현황

(단위 : %, 조)

그룹	비금융 부채비율	89년말 비금융부채비율	총부채 비율	전체부채 총계	비금융	금융
현대	229.7	482.8	396.2	74.8	60.2	15.3
삼성	194.0	252.1	443.7	101.0	41.5	62.7
LG	273.0	314.5	357.6	43.0	30.6	12.7
SK	227.6	240.3	254.8	24.4	23.1	1.6
한진	239.7	458.0	277.5	18.8	15.4	3.7
쌍용	1,789.0	1,403.3	1,773.6	9.3	8.0	1.3
한화	227.5	332.6	246.5	7.4	6.1	1.3
롯데	81.95	117.7	86.8	6.7	6.3	0.4
한솔	226.0	346.6	267.1	6.8	5.9	1.3
두산	240.0	331.8	242.1	4.7	4.6	0.1
동부	253.0	27.3	453.6	6.6	3.1	3.5
한라	297.8	-	297.8	0.9	0.9	0.0
코오롱	208.7	335.3	214.3	2.9	2.8	0.1
동양	280.0	303.2	1,254.6	10.7	2.5	8.4
새한	295.6	276.3	295.6	2.4	2.4	0.0

2.2.3 금융비용 지급여력

30대 재벌그룹 중 1999년 말 현재 계열사 평균 이자보상배율⁶⁾이 1 미만인 곳은 현대(0.91), 삼성(30.15), LG(1.42), SK(1.47)의 4대 그룹의 평균은 1.71이며, 한진(0.78), 한화(1.16), 쌍용(0.28), 한솔(0.38), 두산(0.90), 동부(1.70), 코오롱

5) 외국의 경우 금융업을 포함할 경우 GE가 839%, GM이 902%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

6)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0.53) 동양(1.48) 새한(0.41) 등 <표 Ⅲ-8>에서 기업집단의 금융비용 지급여력의 지표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16개 기업집단의 평균은 금융업을 포함할 경우 1.42, 비금융업만은 1.32를 보이고 있다. 30대재벌 대부분 그룹은 1999년도 창출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다 갚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금융비용 지급여력은 전체적으로 1을 상회하여 양호한 편이나 4대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집단 중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과 금융비용의 절감이 요구된다. 이자보상배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3~4년간의 추이를 보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1을 하회했다고 해서 기업집단의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좋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 Ⅲ-8> 30대 그룹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 배)

구 분	영업이익*		경상이익*		세전순이익	
	전체	비금융	전체	비금융	전체	비금융
현 대	0.91	0.93	1.14	1.20	1.06	1.14
삼 성	3.15	2.87	2.94	2.07	2.44	2.39
L G	1.42	1.32	2.93	2.83	2.96	2.86
S K	1.47	1.44	1.65	1.63	1.39	1.64
4대계	1.71	1.62	2.08	1.84	1.89	1.92
기타계	0.71	0.60	1.06	0.96	1.52	1.41
총 계	1.42	1.32	1.78	1.58	1.78	1.77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이자비용 - 이자수익, 경상이익률: 경상이익+(이자비용 - 이자수익)/이자비용 - 이자수익

2.3 기타

2.3.1 지역별 사업현황

기업집단의 지역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경쟁치열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외부문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부문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3.2 내부거래현황

총매출액 대비 16개 기업집단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4.9%이나 4대

기업집단을 제외하면 13.45%에 불과해 내부거래비중은 수직계열화된 4대 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업집단내에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내부거래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Ⅲ-9〉 내부거래규모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총매출액 *			내부매출액 *		
	전체	국내	해외	전체	국내	해외
현대	112.98	83.33	29.65	43.04 38.1%	41.27 49.5%	1.78 6.0%
삼성	148.17	111.21	36.96	61.73 41.7%	46.56 41.9%	15.17 41.1%
LG	83.48	62.28	21.20	31.76 38.0%	25.96 41.7%	5.80 27.3%
SK	51.72	38.39	13.34	18.68 36.1%	11.46 29.8%	7.22 54.1%
4대계	396.36	295.21	101.15	155.21 39.2%	125.24 42.4%	29.97 29.3%
기타	77.89	71.17	6.72	10.43 13.4%	9.48 13.3%	0.95 14.2%
총계	474.25	366.38	107.87	165.64 34.9%	134.72 36.8%	30.92 28.7%

* 내부거래 상계전 총매출액임.

* 내부매출액비율은 내부거래 상계전 총매출액대비 비율임.

Ⅳ. 결합재무제표 공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999사업연도에 대해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는 작성양식이나 표시방법에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주식사항의 공시형태나 세부화 정도는 기업집

단 간, 외부감사인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형태에 있어 문제점을 재무제표표시의 문제점과 주식사항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은 규정에 의해 양호하게 작성되었으나, 화폐단위를 원, 천원, 백만원 등 여러 가지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폐단위는 가능한 한 통일되어야 하지만 일반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정보 분석에 중요한 주식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숫자의 불일치, 결합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 등으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계열회사 현황, 결합자본변동표, 상호지급보증, 자금대차, 내부매입·매출 거래내역 등에 대한 공시도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주식에 기재된 개별 항목과 그 합이 틀리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주식 간 숫치가 틀리는 등 아주 기본적인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공시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었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세부사항을 기재하면서 합계가 기재되지 않은 주식도 많이 눈에 띈다. 정보이용자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합계를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재된 내역의 완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집단간 공시범위나 공시형식이 상이하야 정보의 유용성 및 기업집단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예로는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주식공시를 들 수 있다. 계열회사별로 외화자산·부채총액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국내계열회사와 해외계열회사로 구분하여 주요 외화자산·부채 항목별로 기재한 경우도 있는 반면 국내·외 구분 없이 주요 자산·부채 항목별 총액만 기재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원화환산액이나 원화환산시 적용된 환율에 대한 언급 없이 외화금액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 우리 나라 단기외채의 급증에 대하여 우려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지나친 단기외채 부담이 1997년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외화자산·부채의 만기별 공시는 각 기업집단의 장·단기별 외채부담능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국내·외 계열회사를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도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외화자산·부채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공시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개인대주주나 타 계열회사의 보유지분이 없거나 아주 낮은 경우에도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당해 계열회사는 임원선출 등 실질지배력을

통하여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편입사유가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주석의 비고란에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계열회사의 편입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계열회사 현황을 보여주기 앞서 전체 계열회사 중 재무제표에 포함된 국내·외 계열회사 수와 결합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국내·외 계열회사 수 및 당기 중 편입되었거나 퇴출된 계열회사의 내역 및 그 사유 등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계열회사 현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결합자본변동표는 기업집단의 당기 중 자본변동내역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집단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건실한지를 나타내준다. 예를 들어, 자본증가가 주로 재평가적립금이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또는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서 기인한다면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채의 감소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감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주식시장에서 장세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손실이나 평가손실로 전환되어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자본의 증가가 부실계열회사의 처분으로 인한 것인지, 유상증자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내역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업집단 간 자본변동표의 세부내역이 상이하하여 기업집단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상호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에 대한 정보는 계열회사 간 위협의 연계성이나 한 계열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모든 계열회사 간 상호채무보증이나 자금거래내역이 공시되어야 하나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를 구분기재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총채무보증금액이나 총자금대여·차입금액의 5% 이상인 계열회사는 구분하여 기재하며 나머지는 합산하여 기타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5%기준을 적용한 결과 구분 기재된 계열회사의 수 및 구분 기재된 금액의 총금액 대비 비율은 기업집단 간에 편차가 크다. 특히 최상위 4대 기업집단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시는 하위 기업집단에 비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8년 기준 지급보증을 제공한 계열회사 수와 1999년 결합재무제표상 구분 기재된 계열회사 수를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다.

2. 결합재무제표제도의 향후 개선방향

최초로 공시된 30대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시의 문제점에 의한 향후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먼저 결합재무제표를 비롯한 공시에 대한 기업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시하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므로 가능한 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해야 한다면 좋은 정보만 공시한다라는 생각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한다. 기업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은 이를 기초로 자원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시장은 신뢰도가 회복되고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차별화 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법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시요구만 충족시킨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통하여 다른 그룹과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공시자세가 요구된다.

결합재무제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계열회사의 자료를 수집·대사 한 후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하고 결합분개를 통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혹자는 과도기적 성격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거액의 시스템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란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재벌총수가 계열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 기업집단의 경영은 개인총수의 지배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집단전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는 요구된다. 설사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결합시스템이 연결시스템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결합/연결시스템은 단지 결합재무제표작성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개별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개별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결합재무제표정보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기업집단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999결합재무제표는 주식공시에 있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며 작성양식이나 세부적인 내역에 있어서도 기업집단 간에 편차가 크다. 심지어는 합계가 틀리는 기계적인 오류도 빈번하게 눈에 띈다. 만일 작성자가 이용자 입장에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이러한 오류나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기업집단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식 및 공시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주식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시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기재하는 주식사례까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사항이라면 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 간 상호지급보증, 자금대차, 내부거래내역, 부문별 공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식 사례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의하여 제한되는 계열회사 간 상호채무보증 현황에서의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를 matrix상에 구분표시할 경우, 계열회사 간 총채무보증금액의 5% 이상인 계열회사는 구분표시하고 나머지는 합산하여 「기타」로 표시할 수 있다. 계열회사 간 기타 상호채무보증 현황에서도 계열회사간 총채무보증금액의 5% 이상인 계열회사를 구분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계열회사 간 상호담보제공 현황에서 계열회사 간 총담보제공금액의 5% 이상인 계열회사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합산하여 「기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에서 계열회사간 매출·매입금액의 5% 이상인 회사는 구분표시하고, 나머지는 합산하여 「기타」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상호채무보증이나 상호담보제공 및 매출·매입거래가 몇몇 계열회사에 편중되어있는 경우 대부분이 「기타」에 해당되어 matrix작성의 효익이 낮아지므로 기본적으로 공시되는 최소한의 회사 수를 규정할 수 있는 5% 기준과 보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개별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에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투자자산이나 고정부채로 처리하여야 하나 결합준칙에서는 결합대상계열회사 각각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는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변동사항을 총액기준으로 공시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결합재무제표에서도 이연법인세차·대를 순액으로 공시하여 개별이연법인세공시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주식 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 투자채권시가평가대상(수익증권 등)의 시가공시, 투자채권의 액면가액과 유효이자율법

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및 공정가액에 관한 적절한 주석공시가 필요하며,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및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정, 계열회사의 결산일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다른 경우 계열회사의 결산일과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 및 이의 조정내용 등에 관한 충분한 주석공시가 필요하다.

현행 외감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선정·통보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기업집단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따라서 기업집단 스스로 계열회사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외부감사인이 그 적정성과 완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합대상 계열회사 결정방법이다. 외부감사인이 기업집단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모든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시된 결합재무제표의 활용도이다. 결합재무제표가 전체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나 이들 정보가 계열기업인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의사결정하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그 외의 많은 이해관계자에게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료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더욱더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 중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부과, 임직원문책 등 강력 대응으로 사후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V. 결 론

우리 나라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과 자금대차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별로 전체적인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같은 측면에서 본 분석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합재무제표의 공시된 내용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석공시 등에 있어서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

러나 내부거래가 상계·제거된 후의 자산, 부채, 매출액,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우량그룹과 부실그룹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제 나머지는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감독기관과 결합재무제표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하는 투자자의 몫이다. 결합재무제표상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 결합재무제표작성은 기업집단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 정부는 결합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허위나 분식결산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업 및 외부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고 한다(한국일보 2000. 8. 1).

아무쪼록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투자자들은 결합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연관성 및 그 숫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결합재무제표의 활용에 있어 투자자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의 주된 역할은 소유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기업집단의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결합재무제표가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향후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 고 문 헌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www.fsc.go.kr>) 2000-26호, 2000. 8
2. 공정거래위원회, 2000년도 대규모기업집단현황, 2000. 9. 4
3. 고완석, “결합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에 대한 고찰,” 1998년도 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1998.
4. 권수영, “결합재무제표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결합재무제표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1998. 3. 18.
5. 김일섭, “기업경영의 투명성 개선방안-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LG 경영연구동 개관기념 심포지움-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1998.
6. 남상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1992.
7. 송인만,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효과,” 결합재무제표의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1998. 3. 18.
8. 안영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방법과 문제점,” 결합재무제표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1998. 3. 18.
9. 이만우, “결합재무제표기준 제정시 고려할 사항,” 1998년도 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1998.
10. 임금자,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계제도의 연구,” 1998. 4.
11. 전영순, “결합재무제표 기준의 제정 방향,” 결합재무제표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1998. 3. 18.
12. 전영순, “결합재무제표 기준의 제정방향,” 회계·세무센터개소기념 심포지움-결합재무제표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1998.
13. 정연해, “연결재무제표 비율의 정보효과,” 대한경영학회지 제14호, 대한경영학회, 1996.
14. 大西又裕, “連結財務諸表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意見書案について,” 商事法務, 제1450호, 1997. 3, pp.2~3.

15. 中村 義人, “連結決算とセクメント情報 の開示への對應,” JICPA Journal, No. 512, 1998. 3.
16. 武田安弘, “企業結合會計の研究,” 白桃書房, 昭和 57年 5月 16日.
17. *Accounting Research Bulletin*(ARB) 51, 1959.
18. Barry J. Epste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1997, John Wiley & Sons, Inc., p.334.
19. BADC(Business Accounting Deliberation Council), “중간연결재무제표와 Parent only Financial Statement에 관한 의견,” 1998. 3. 13., JICPA 홈페이지
20. FASB Discussion Memorandum, “Consolidation Policy and Procedures,” 1991.
21. Pacter, P., “Consolidation : An Overview of the FASB DM,” *Journal of Accountancy*(April 1992), pp.56~61.
22. Price Waterhouse, *Consolidation/Equity/Accounting*,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Publicly Announced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Improvement Points

Park, Sang-bong

Our business conglomerates are sharing their fates economically because of mutual debt warranty among their own affiliates and excessive financial loans. For this reason, it is inevitably restrictive to obtain the whole information on such conglomerates by individual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system of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was introduced through modifications of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s in 1988. As a result, 15 out of this nation's 30 major business conglomerates prepared and submitted their own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In this paper, all financial statements are grouped into financial and non-financial part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business control and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Then the business size, financial rate and internal transactions for each of the conglomerates are analyzed, based on which problems of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as announced publicly are clarified. For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oints such as a sufficient publication of any possible situations and interest coordination caused between the date of business settlement and that of preparing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by applying principles of sharing to the evaluation of valuable instrument papers for investment and by determining the amount, 5% accounting for the total amount of debt warranty, foreign exchange assets and debts.